

# 10년 회고와 새로운 시작



최주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전무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가 원료제조업 6개사와 포장재 제조업체의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를 회원으로 1993년 4월에 발족되었으니 벌써 10년이 되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선진 각국을 시작으로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에 스티로폴 업계는 환경대책 회의를 통하여 사용 후 버려지는 스티로폴 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산자를 중심으로한 재활용단체를 구성하여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확정되었다. 원료 5개사로부터 파견되어온 6명의 지원군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재활용사업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EPS재활용회의의 참가 등을 통하여 선진국의 재활용 기술 정보를 수집하였다. 1994년에는 국제EPS재활용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의 재활용 단체가 회원국에 수입된 가전제품의 원충포장재의 재활용 사업을 상호 이행하도록 하여 EU의 수입가전제품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였다. 1995년에는 사무국 임직원을 전원 아웃소싱하여 체제를 일신하였고, 협회보 환경사랑을 격월간으로 창간하였다.

1995년 말 행정쇄신위원회의의 조정으로 환경부가 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1996년 3월부터 시지역이 그리고 1997년 1월부터 군지역에서 스티로폴 분리 수거 사업을 시작하였다. 협회는 지자체의 재활용 설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활용 인프라를 갖추는데 일조하였다.

1996년 2월과 12월에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가전완충재 회수 재활용 사업을 위한 재활용 협정을 맺어 명실공히 생산자 주도의 재활용 사업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국내 제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일 평균 30,000개 이상 발생하는 수산물상자, 딸기와 포도 등 농산물 포장상자를 모아서 재활용하는 설비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1998년 5월 그동안 협회의 왕성한 재활용 사업 실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서울시 환경대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15개소를 선발하여 포상금과 함께 격려하였고, 2000년 3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계룡산에서 스티로폴 재활용 원료로 만든 새집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2000년 말 현재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은 총 27,177톤으로 재활용율 51.3%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01년에는 스티로폴 재생원료로 만든 그림액자 틀 단일품목으로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 각국에 2,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는 회원사들의 전폭적인 후원과 그리고 환경부의 시기적절한 재활용 정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집행, 그리고 가전업체와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의 협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 단체의 조언 등의 덕분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 창설 이후 사무국 임직원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팀워크를 이루어 오늘까지 열심히 일해 준 것에 감사한다.

2003년 1월부터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가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 협회는 회원사가 원료업체 이외에 법적인 재활용 의무 생산자, 재활용 원료 업체, 그림액자 수출업체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어 보다 확대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